삶은 인도 안 하신다

(요10:16~21)

16.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17.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18.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19.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20.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21.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삶은 인도 안 하신다>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삶은 인도 안 하신다'

예수님이 목자고 우리들이 양이다.

이 세상의 삶을 어렵게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에게 이처럼 완벽할 정도로 고무적인 말씀이 어디 다시 있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뭐 걱정할 게 없지요, 우린 그냥 양으로 되면 되는 거예요, 양이 세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푸른 초장으로 인도되면 거기서 풀 뜯고, 물가로 가면 물가에서 물마시면 됩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에서 능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양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시게 될 때, 우리가 분명히 해두어야 될 게 있습니다.

조~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물론 구약에서 시편 전체를 통틀어 보면 여호와가 목자가 되셔서 인도를 받을 때, 시편 23편에서도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라는 말이 있어서 목자가 되셔서 여호와께서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궁극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마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아주 본격적으로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양인 우리들을 인도하실 때는 절대로 이 지상 위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의 삶, 우리의 직장의 삶, 내 인생의 여정, 이것을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좀 이상하지요? 낯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기정사실이고 그것이 언제나 과제인데,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세상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지, 삶을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삶을 절대로 인도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을 인도하십니다.
내 마음을 인도하시는데, 더더군다나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면 내 삶에서 내 마음이 떠나도록 인도하십니다.
절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을 이 세상, 이 지구, 이 땅에서 떠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육체가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어야 될 이 땅의 삶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직접 사십니다,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인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아니라 마음이고,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오히려 우리 마음을 빼내서 데려가 버리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떠난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이 직접 사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 그러니까 유대 땅에 있는 양들이 있고 유대 땅 바깥에 있는 다른 양들, 우리처럼 유대인에 대해서 이방인의 위치에 서있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사람들과 사람들이 섞여 사는 이 가운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나설 양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지구의 종말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음성을 듣는 예수님의 양들이 발굴이 되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다 좋은데, 17절에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셔야 될 분이 자꾸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조금 낌새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18절에 보면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상황이 다른 거예요.
목숨을 버린다, 목자가 되신 분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을 11절에도 15절에도 17절에도 반복하십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목자가 목숨을 버리는 것이 지금 이만큼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목숨을 버릴 각오로 양들을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이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런데 목숨을 버릴 각오로 지키시다가 어쩔 수 없어서 잡혀서 죽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목숨을 버린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양은 목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목자가 힘이 없어서 잡혀죽는 게 아니라 스스로 죽음에로 가신다고 그러면, 양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목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스스로 죽음에로 가시는 거니까.
양들을 지키려다 힘이 부쳐서 잡혀죽는 거라면, 양들이 뿔뿔이 흩어지거나 잡아먹히게 될 텐데, 이거는 양을 인도하시는 입장에서 죽음에로 들어가신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진짜 예수님의 양들이라면 목자인 예수님을, 죽음에로 가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음성이란 십자가에서 달려죽으신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이리로 와라, 이리로 와라, 십자가에서의 죽음에로 와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지금 삶에 마음을 몰입해가지고 집중해서 이 삶을 영위해나가도 제대로 살아낼까 말까 한데, 주님께서는 목자가 되셔서 당신의 양들을, 삶의 현장에서 마음을 몰입해서 삶을 열심히 살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앞서 가시며 헤쳐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쪽으로 가셨어요.
부득불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가시면서 '이리로 와라, 이리로 와라' 당신의 양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귀신들려 미쳤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지금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삶에서 떠나서 죽음에로 오라고 해서, 우리 마음이 이 세상 삶의 현장에서 떠나 죽음에로 인도되어야 된다고 그 죽음을 붙잡는 것은, 귀신들려 미쳤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핑핑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상태에서 '이리 오라, 이리 오라!'고 하시면,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므로 그 음성이 안 들리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귀신 들려 미쳤거늘'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사도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날마다 예수님께서 발하시는 음성을 듣는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사도바울이 따라가다 보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십자가로 간다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지 월, 수, 금요일에만 듣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날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서 십자가에서 죽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얘깁니다.
아, 이것 참 묘한 거예요.
십자가는 세상의 삶의 자리를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 자리로 가게 되면 십자가 너머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호흡을 관장하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아버지가 계시는 하늘로 가게 됩니다.
십자가 너머에 있는 것이 하늘이에요.
십자가 말고는 하늘로 통하는 길이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없어요, 아무리 하늘 얘기하고 천국 얘기해도, 불교에서 극락왕생을 얘기해도 추측일 뿐이지, 진짜 하늘에서 오신 분이 십자가를 통해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자들의 마음이 하늘로 도달하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부르심을 받고 그곳에서 세상에 대해 죽으면 그 너머가 하늘인 거예요.
그 하늘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목자가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로 인도하시고, 십자가에서 삶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십자가 너머에 있는, 아버지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늘나라로 우리 마음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우편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목자 되셔서 우리를 양으로 부르셔서 인도하시는 인도의 여정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목자이신 경우에 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날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돈에 쪼들리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이 없구나!'하며 돈이 없다는 상황을 딱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때 목자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양인 사람들의 마음에는 음성이 들립니다, '십자가로 오라, 십자가로 오라!'
왜냐하면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 잡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이니까, 그렇게 목자가 인도하기 위해서 길을 내신 것입니다, 그리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마음을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도 음성을 듣지만 다른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세상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부릅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려야 되겠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 돈이 없으면 망한다, 돈이 없으면 인생의 loser가 된다, 이러한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 음성에 따라서 행동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양들은 십자가로 오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돈이 없다는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빠져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 하면, 돈에 쪼들리는 상황이 되면 그 상황 속에 마음이 박혀버립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고민하고 염려하며,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해나갈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돈이 쪼들리는 이 위기의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실 거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 세상의 삶을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의 삶 속에 우리 마음이 들어가 있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붙잡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이 돼가지고 '이리 가면 잘 풀릴 수 있고, 저리 가면 막힌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음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로 가버린 사람들의 마음자리가 비게 되면서, 돈에 쪼들린다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원래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투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건, 우리가 만나는 사람, 그 어떤 순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뜻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이 세상의 삶의 순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뜻과 이 세상의 삶의 상황 사이에서 우리가 그 상황을 붙잡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우리가 그것을 경영해나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투명하게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자동차를 타고 가끔 정차할 때가 있어요, 사람을 기다린다든지 할 때.
그런데 그때 비가 와요, 자동차 시동을 끄고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빗물이 앞 유리창에 투둑투둑 하고 떨어져서 얼룩얼룩 하면서 나중에는 앞이 하나도 안 보이고 얼룩얼룩 물방울만 보이게 돼요, 이때 와이퍼를 한번 움직여서 닦아주면 밖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따라서 이 세상의 삶을 떠나 십자가로 가게 되고, 십자가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로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을 이 땅의 우리 몸 안으로 보내주시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갖고 계신 뜻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 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직접 사십니다.
이때 운전석에 앉아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있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내비게이션으

로 옆에 앉아서 말씀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운전자가 직접 되십니다.
그래서 뜻이 있어서 앞으로 가시려고 할 때, 우리 마음이 중간에 끼어있으면 우리 마음이 염려하고 걱정하므로 그게 빗방울이 됩니다.
우리 마음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우리 마음이 소원을 갖고, 인생에 대해서 꿈을 갖고 비전을 가지면,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갖고 계신 뜻에 대해서 물방울이 되고 빗방울이 되어 앞을 가려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로 빠져버리면 맑게 갠 하늘에 깨끗한 유리창 앞으로 보이는 길처럼 하나님의 뜻이 쫙쫙 뻗어나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양들이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양들은, 세상 사람들은 귀신들려 미쳤다고 여겨질 정도로 이상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왕이 되셔서 면류관을 쓰시고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스스로 죽음에 내어주신 그 인도하신 그 길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도,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내 마음이 그 상황에 박히려고 할 때, 양들은 음성을 듣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로 와라, 십자가로 와라!'
자식이 문제가 생겨서 자식에게 마음이 가서 박히려고 그럴 때, 양들은 음성을 듣습니다, '십자가로 와라, 십자가로 와라!'
그래서 건강상태를 떠납니다, 자식을 떠납니다, 경제상황에 대해서 떠납니다, 대한민국의 상황,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떠납니다.

십자가로 인도를 받고 십자가 너머에 있는 아버지께로 우리 마음이 갑니다.
이때 우리 마음이 빈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 육체로 이루어진 이 삶의 운전자가 되셔서 당신의 뜻을 쫙쫙 뻗어서 길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있는 길만을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세상을 관장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운전자가 되신 다음에는 내 삶을 직접 사실 때 없는 길도 만들어서 가시면 그게 길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계시고, 하나님이 직접 사실 준비가 되어있

는 우리의 삶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과 내 삶의 중간에서 스스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빗방울이 되어 앞의 유리창을 가리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십자가로 인도되어, 십자가 너머로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따라서 오늘도 우리 마음이 아버지 우편까지 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에 우리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까지 가서 그곳에서 어떡하든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천국을 느끼는 것을 우리 마음의 과제로 삼을 것이요,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이 직접 사시게 되는데…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예를 들어 돈에 쪼들리는 상황이거나 가족의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 그 상황으로 마음이 곧장 달려가서 마구 얽히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십자가에 가서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며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므로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에서 내 마음이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기다리면, 이상합니다, 내 주위 전체가 하나님의 기운으로 꽉 차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겁니다.
그 움직임 속에서 내 몸이 움직여 가는 겁니다.
이 신비한 경험을 우리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는 사도바울은 날마다 아침에 눈뜨면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십자가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로 마음이 가버릴 때, 성령께서 사도바울의 마음을 움직이시면서 하나님아버지의 뜻과 주님의 뜻을 받아서 움직여 살아가는 겁니다.
꼭 사도바울이 아니더라도 모두가 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목자 되시는 주님은 이 지상에서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로 인도하시고, 십자가 너머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금 인도하십니다.
이 지상의 삶은 하나님이 직접 사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바쁜 직장에서, 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가정에서, 주님의 양들로써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에로 가고, 십자가를 넘어 아버지의 집까지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인도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 지상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직접 사시는 모습을 보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